

전남도, 여름철 폭염 대비 지원대책 본격 추진

온열질환자 감시 체계 가동
긴급복지·경로당 냉방비 지원
10월까지 자연재난 대책 기간
김영록 “도민안전 예방책 만전”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전남도가 ‘여름철 폭염대비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또 장마철을 앞둔 5월을 재해대책 사전 대비의 달로 운영, 총력 대응에 나선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 말까지 시군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44개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열질환자 발생 감시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경로당 방문 및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폭염 예방수칙 등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며 폭염특보 알림 및 음성 신고 등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4200여 명을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활동에 집중 투입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사 관리, 말벗, 청소 관리, 전화 안부 등 서비스를 한다.

폭염 기간인 7~8월에는 경로당 총 9444개소에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된 냉방비 월 16만5000원을 지원하며, 경로당별 운영 상황에 따라 기존 난방비와 양극비 예산의 탄력적 사용도 허용한다.

실직·휴업·폐업, 중질병 등으로 일상생

활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금(1인 가구 기준 생계비 71만원 등)도 대폭 강화한다.

6만3900여 명이 근무하는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서는 폭염에도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해 6월 중 1회 이상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폭염 상황에 따라 무더운 시간대에는 가급적 활동을 자제하도록 일자리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태풍, 호우, 폭염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 535곳을 관리하고 지구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사전 점검, 주

민 대피 등 밀착 관리에 나선다.

또 전남지역 지하차도 20곳에 대해선 사전통제를 위해 공무원과 민간, 경찰 등이 참여하는 ‘5인 담당제’를 실시키로 하고, 차단시설 작동, 배수 소통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15일부터 위험기강(50mm/h·90mm/3h) 발생 시 읍면동별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호우 긴급 재난문자 발송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사태에 대비해 지난 4월 취약지역인 광양 점동마을 일원에서 마을 주민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2024년 산사태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전남도는 또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

비 행동요령을 정비해 도 13개 협업가능 27개 담당부서와, 22개 시군, 전남도교육청 등 26개 유관기관에 배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육군 31보병사단과 서해지방경찰청, 전남경찰청에 여름철 풍수해 대응 군·경 인력·장비 동원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도 요청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올해는 7~8월 평균기온이 높고 예년보다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측돼 어느 때보다 온열질환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도록 다양한 폭염 예방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5·18 기념일 ‘무료’ 광주지하철 승객 급증

6만542명 탑승 전년비 50% 증가
ACC·금남로4가·송정역 등 늘어

광주시가 지난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버스와 도시철도 무료 운영을 추진한 결과 승객이 지난해보다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주말 이용자보다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18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전당역·금남로4가역·송정역 이용객이 크게 늘어 광주시의 무료 운영 취지가 충족됐다는 평가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내년에는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기념식이 열린 지난 18일(토요일) 광주 도시철도 이용객은 6만5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 토요일 평균 이용객인 4만405명보다 2만137명(49.8%)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달 토요일 평균 이용객인 4만1426명보다도 1만9116명(46.1%)이 증가했다.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정차역은 문화전당역이 71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준 3000여명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으며, 다

음은 송정역 6687명, 금남로4가역 6677명 순이다.

버스도 무료 운행했지만 교통카드단말기를 운영하지 않아 이용객 수가 확인되지 않았다.

버스 업체 측은 “확실히 예년보다 더 많은 이용객이 탑승했다”면서 “금남로로 가는 버스는 거의 꽉 찼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동수단 무료이용은 지난달 29일 통합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에 명시된 것으로 해당 조례안에는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기념일 시내버스·지하철 무료 운행’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강 시장은 “올해는 버스와 도시철도가 무료 운영됐지만 내년에는 새빛볼 택시 등까지 확대 적용해볼 생각이다”면서 “또 여러 좋은 방안들이 제시됐기에 이를 수합해 보다 적절한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전남일보 페이스북
facebook.com/jnilbo



서구 하계 방역기동반 발대식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동 방역 담당자 및 방역요원들이 21일 광주 서구청 광장에서 감염병 매개 해충 방제를 위한 하계 방역기동반 발대식을 갖고 연무기 시험 가동을 하고 있다. 방역기동반은 관내 18개동에서 주택가 뒷골목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김영배 기자

광주박물관-시교육청 ‘문학 인성교육’ 업무협약

광주박물관과 광주시교육청은 21일 광주박물관에서 ‘문학을 통한 지역 연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간의 삶과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문학의 바탕으로 광주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광주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 및 학교폭력 예방 △독서·문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양 기관 사업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지원 공동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병하 기자

협약에 따라 광주박물관과 광주시교육청은 하반기부터 인성 함양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박물관은 지역 연계 협력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광주광역시교육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각화청 소년문화센터와 협업하며 직무연수 등 다양한 문학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엑스페론 XPERON